

**KDK (김도균)** 1973년 광주 출생. 서울, 쾰른, 뒤셀도르프 거주 및 활동

김희경

현재 쾰른과 뒤셀도르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KDK는 서울예술대학 사진과에서 공부하였으며, 2001년부터 뒤셀도르프 쿤스트아카데미에서 사진을 전공했다. 이곳은 베르트 힐라 베어부부(Bemd-Hilla Becher)와 그의 제자들, 토마스 루프(Tomas Ruff), 토마스 스트루스(Tomas struth), 칸디다 회퍼(Candida Höfer) 등 소위 베허파(Becher School)로 불리는 유명작가들이 거쳐간 곳으로, 특히 그는 토마스 루프로부터 사진을 배웠다.

작가는 '도시건축'을 모티브로 현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추상적 아름다움을 엄격하고 미니멀한 방법으로 제시한다. 그는 현대 독일 사진의 객관주의적인 특징을 KDK만의 표현방법으로 잘 묘사해 낸다. 가상현실감(Virtual reality), 무표정의 미학(Deadpan aesthetic), 그리고 추상성은 KDK 작품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 사진에 나타나는 가상현실적 느낌은 철제와 유리로 된 현대 건축 표면의 느낌 때문이지만 몇몇 사진은 구르스키(Andreas Gursky)작품처럼 CG(Computer Graphic)작업이 병행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의 사진 앞에 서면 관람자들은 그의 작품이 실제 모습을 담은 사진인지, 혹은 CG조작이 가해진 사진인지 혹은 현실의 공간인지 가상의 공간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진 속 이미지들은 매우 인공적이다. 또한, 작가는 현대 건축물을 촬영하되, 작가의 태도를 반영하지 않은 가치 중립적인 태도로 대상과 거리두기를 시도한다. 다만 빛과 어둠의 대비, 반복되는 그리드와 미니멀한 건물 외벽이 만들어 내는 추상성은 독일 작가들의 말하기방식과 다른 점이라 할 수 있다.

KDK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현대적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기하학적 미에 관한 것인데, 작가가 제시하는 사진은 건축 사진이기 보다는 기하추상, 혹은 색면 추상에 가깝다. 그가 포착한 고딕 성당의 외벽, 미니멀한 현대 건축물의 벽, 색유리, 그리고 반복되는 바닥과 천장의 격자 무늬들은 성당, 주차장, 개인주택이라는 건물의 고유성을 잃게 하고 건축을 하나의 패턴으로 읽히도록 만든다. 작가는 건물의 여러 각도 중에서 가장 회화적으로 보이는 앵글을 선택하여 화면을 구성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작품은 건축 사진이기 보다는 공간과 구성, 패턴을 보여주는 색면 이미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사진은 한국 무덤 3연작 흑백사진에서부터 현대 건축물에서 발견되는 기하학적 아름다움을 찍은 컬러 사진, 속도에 대한 이미지 사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KDK의 작업은 전통적인 한국

문화와 뒤셀도르프 사진의 특징인 객관성이 결합되어 보여진다. 이는 작가가 경험을 통해 습득한 두 나라, 두 도시의 특징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특징은 그가 선택한 대상들,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건축 사진의 엄격함에 모두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의 초기 사진에서 드러나는 색채는 특히 18세기 조선시대의 민화에서 발견되는 것들이었으며, 무엇보다 한국적인 풍경, 즉 한국의 산과 절, 탑에 대한 그의 경험들이 사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2001년부터 그는 달리는 자동차에서 밖의 풍경을 촬영하였는데, 속도감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 시기의 작품들에는 풍경, 화물차, 가드 레일, 그리고 버스 등 구체적 대상들이 추상적 패턴으로 변형되어 보여진다.

최근 작업들은 베허파 사진 작품들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 베허파 사진과의 공통점은 동시대 사회와 문화를 반영하는 오브제를 선택해 중립적이고 중성적인 태도로 담아내는 유형학(Typology)적 방법과 연작 사진(Serial photos)의 개념을 차용한다는 것이다. 차별성을 이야기 하자면, 베허파의 오브제가 산업건축물, 루프의 경우 얼굴이었다면, KDK에게 있어 오브제는 건축물, 특히 미니멀한 현대 건축물의 외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물을 모티브로 촬영한 베허파 작가들이 맑은 날 낮에 정면샷으로 엄격하게 중립성, 정면성을 강조하여 작업했다면, 최근 작업에서 그는 다소 중립적인 태도에서 벗어나는 듯 보인다. 이는 촬영방식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작가는 건축물의 전체 외관을 가늠할 수 없도록 일부분이 잘려진 채로 촬영하거나 혹은 건축물의 부분만을 담아낸다. 또, 그는 깊은 원근감을 표현하기 위해 중앙원근법을 사용하거나 혹은 사선구도로 촬영한다. 무엇보다 그의 작품은 빛이 사라진 밤에 촬영되었다. 사진에 있어 대상, 혹은 오브제의 흔적이 실상은 빛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사진은 빛과 화학의 작용으로 탄생하는 이미지, 즉 빛으로(Photo) 그린 그림(Graphy)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작가에게 있어 '빛'은 태양이 만들어 내는 빛이 아닌, 건물의 내, 외부에서 발하는 인공적인 조명으로 대체된다. 무엇보다 KDK의 사진에 담겨지는 색들은 건물 내,외부의 조명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공적으로 발하는 빛을 이용하여 매우 낮설게, 그러면서도 아름다운 색채로 그려진 그의 작품은 관람자로 하여금 사진과 추상그림, 현실의 공간과 가상의 공간을 떠돌게 만든다.